국감서 전남대병원 채용비리 '도마'

고위간부, 아들 · 여친 · 조카 불법채용 관여

박용진 "청년들 박탈감…경고 징계로 끝나"

"완벽한 아빠찬스, 삼촌찬스지."

전남대병원 고위 간부가 아들과 조카 채용에 관여하는 등 '불법 채용비리' 가 발생했으나 병원측은 경고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15일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본관 1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 1반의 국정감사 보충질의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남대병원 간부가 자신의 아들과 조카의 채용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A 간부는 채용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조카에게 최고점을 줬다"며 "전남대병원에서 한 달 실습한 게 경력의 전부인 아들 채용 때도 관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합격자들의 명단을 보면 경력이 수두룩한데 이것은 '완벽한 아빠 찬스' "라며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아빠찬스, 삼촌찬스로 지역 청년들에게 박탈감과 자괴감을 줬으나 전남대병원은 경고로 징계를 끝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 자료를 보면 A 간부는 시험관리위원으로도 참여했는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했느냐"며 "교육부 감사 전에는 문제가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완벽한 아빠찬스와 삼촌찬스를 써서 박탈감을 줬는데 병원장 포상을 받았다"며 "공공기관에서 비리를 저질렀는데 교육부에서는 경징계를 요구했다"며 "이러니 청년들이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A 간부의 아들 여자친구도 채용에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10명의 합격자 중 경력이 단 한 줄 밖에 없는 사람이 딱 2명이 있는데 그게 간부의 아들과 여자친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삼용 병원장은 "조카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했어야 했지만 시간이 경과돼 경고로 끝났다"며 "2018년 아들 채용 때는 마지막 결재 도장을 찍은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다. 확인 후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국감장에 출석한 A 간부는 "합격한 뒤 뒤늦게 그 내용을 알게 됐다"며 "해당 경력을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도 "간부의 아들과 조카가 근무하고 있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며 소명기회를 달라는 병원측의 요구에 "소명보다는 이건 국민들에게 할 일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병원장은 의사활동도 해야 하지만 관리도 해야 한다"며 "제대로 관리를 한 것인지, 사후보고만 받으면 사전에 일어난 일은 다 무마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사실이라면 지탄을 받아야 할 일"이라며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확실하게 조사해달라. 눈곱만큼도 잘못된 점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아무런 조치를 안했다면 병원장은 하루 빨리 물러나 의사에 전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예술이 된 플라스틱 폐자원 15일 서울 청계천 청계광장~광통교 구간에서 열린 '제5회 청계천 업사이클 페스티벌 류(流)' 행사에서 시민들이 폐자원을 활용한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전남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라"…논 갈아엎는 벼 피해 농가

15일 오전 나주 공산면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정부에 태풍 피해 벼 수매가격 보장을 촉구하며 논 갈아엎기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태풍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 농가들이 정부에 대 농민 지원책을 촉구하며 논을 갈아엎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15일 오전 나주시 공산면 화성마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풍 피해 벼 가격보장과 농작물재해보험 공익성 강화, 특별재난지역 선포' 를 촉구했다.

농민회 측은 "전남의 벼 피해는 2020년 국내 쌀 공급량 부족을 야기시킬 정도로 심각하고, 전남 김장배추 피해액만 산정하면 90%가량이 상품성이 없거나 고사했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50억 재산피해의 4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케케묵은 논리만 내세워 농작물 피해 마을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어렵다는 말만 하지 말고 생계비 지원 등 정부 지원이 절실한 전남지역 농민들에게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농민회는 "수확불능 피해율을 65%밖에 산정하지 않고 세 차례 태풍으로 폐허가 된 논을 35%만 보상해준다고 한다"며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농작물재해보험이 공익성보다는 이윤 추구가 우선이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또 "저가미가 시중에 유통돼 벼 값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수매가격을 공공비축 1등급의 80%로 책정하고 벼 품위도 세분화해 수매하라"며 "단순 무게중심으로 피해를 산정하는 농작물재해보험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민회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트랙터로 지난 9월 전남지역을 관통한 링링, 타파, 미탁으로 피해를 본 논 1200㎡를 갈아엎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뉴스1

동료에 흉기 휘두른 불법체류 태국인 검거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지게 한 태국인이 붙잡혔다.

나주경찰서는 15일 살인미수 혐의로 태국 국적 A씨(27)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쯤 나주시 한 주택에서 같은 국적 B씨(30)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광주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이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농장에서 일하는 B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두사람은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9시12분쯤 검거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서 외국인 노동자 2명 흉기에 찔려

외국인 노동자 2명이 다른 외국인 노동자가 휘두른 흉기에 다쳐 경찰이 범인을 추적하고 있다.

15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한 거리에서 한 외국인 노동자가 러시아 국적 A씨(34)와 카자흐스탄 국적 B씨(23)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팔을 찔린 A씨와 다리를 찔린 B씨는 모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아제르바이잔 국적의 30대 남성으로 전해졌다.

농로서 쉬던 아내 남편 트럭에 치여 사망

논에서 추수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던 60대 아내가 남편이 몰던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곡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39분쯤 곡성군 석곡면 한 농로에서 추수를 마친 후 1톤 포터를 후진하던 A씨(64)가 아내 B씨(62)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치었다. 사고 당시 B씨는 농로 가운데에 앉아 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 등은 A씨가 농로가 좁아서 차를 돌리지 못하고 후진해 빠져나가려다 앉아있는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트럭 적재함에 실린 톤백(수확용 대형 마대자루) 때문에 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 시끄러워' 같은병실 환자 폭행 50대

광주 서부경찰서는 15일 늦은 밤 병실에서 통화를 하며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A씨(52)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환자로 입원 중인 A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쯤 광주 서구 한 병원 6인실에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지속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돼 같은 병실 입원자 B씨(24)를 밀치고 때릴 듯 위협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모두가 잠든 시간에 병실 내에서 통화를 하고 조용히 하라는 말에도 통화를 지속하며 시끄럽게 하자 격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 돈 뜯은 10대들

인천 삼산경찰서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20대 남성을 폭행한 후 현금을 빼앗은 A군(15) 등 3명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군(15)등 3명은 14일 오후 8시 2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주택에서 채팅앱을 통해 만난 B씨(21)를 폭행한 후 현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B씨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후 협박해 현금 50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B씨의 신고로 범행현장 인근에서 붙잡혔다.